

■ 이찬휘의 건강칼럼... 너무합니다. 어떻게 살라구요?

너  
무  
합  
니  
다.

어  
떻  
게

살  
라  
구  
요  
?



이 찬 휘  
SBS 과학정보부장

어젯밤 기막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조금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000 올림”

불과 일주일 전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잘 아는 후배의 아내였다. 그 후배와는 평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만남을 가지던 친한 사이였다.

“남편이 배가 불러오고 얼굴도 검게 변했어요. 피곤하다고 회사에서 오자마자 쓰러져 지는데 땀을 비 오듯 흘리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어쩌면 좋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라고 물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오늘도 출근했었는데요.”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던 말이에요?”

후배의 아내에게 재차 물었다.

그랬더니 “한 3주 전부터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간에 문제는 없었나요?”라고 묻자

“아이 아빠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어려서 걸린 것 같다고 했어요.”

의학 기자 10년의 짧은 소견으로 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빨리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세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후배의 아내는 서너 시간 뒤 핑핑 울면서 내게 전화를 했다.

“응급실에 가자마자 CT을 찍었는데 간암이 말기에 이르렀고 게다가 폐로 전이까지 돼 폐암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래요.”

할 말이 없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버려 뒀단 말인가?’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래요.”

“흑흑.”

“일 밖에 모르고 산 사람인데, 아이 아빠가 불쌍해서 어떻게요!”

후배는 회생의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였다.

“아이 아빠를 입원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받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날로 후배는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3일 후 문자메시지가 왔다.

‘그동안의 배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긴 지 나흘 만에 운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나 기가 막혔다. 증상을 알고 병원을 찾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람이 죽다니...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후배를 영안실로 옮겼다는 메시지를 받고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욱 기막힌 일이 있었다.

‘늦게 결혼해 아이들이 어리겠다.’ 라고 막연히 짐작은 했으나 젊은 아내와 너무도 어린 여자아이와 사내아이가 소복을 입고 있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후배의 아내는 너무 울어 눈이 퐁퐁 부었는데도 설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도 아빠의 죽음을 아는 지 슬픔에 가득한 얼굴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사진 속 후배에게 좋은 곳으로 가라는 염원을 하며 절을 올린 뒤 상주들과 맞절을 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후배의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이 보였다. 내 눈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후배 아내가 흐느끼며 말을 내뱉었다.

“우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떠난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먼저 간 후배는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간 상태에 대해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거기다 일을 좋아해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이었다.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이삼일에 한 번은 술을 마셨고, 담배는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피웠다고 한다. 과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술과 담배로 몸은 더욱 망가지고 있었는데도 쉬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계속했으니 건강한 사람도 쓰러질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다. 더구나 B형 간염 보균자였으니 간이 망가지고 만 것이다.

취재를 하다 보면 수많은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다. 취재가 잘 안 되어 답답하기보다는 답답한 상황에 빠진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일찍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완치가 됐을 텐데 치료가 안 될 상황이 돼서야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매년 아니 2~3년에 한 번만이라도 정기검진을 받았으면 병을 일찍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기다리지 않고 빠르고 쉽게 검진이 끝난다. 특히 비싼 검진도 있지만 저렴하면서도 거의 모든 검진을 받는 곳도 많다.

내가 건강과 의학을 취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다. ㉞